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研究

박 성 식*

Abstract

The Study On The 「*DongMuYooGo YakSungGa*」

Park Seong-sik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

1. Purpose

This paper was written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DongMuYooGo YakSungGa*」 (東武遺稿 藥性歌) which was descending as the material of Sasang pharmacology. So we are planning to make use of the fundamental material of the study on the Sasang Medications and Prescriptions.

2. Methods

Through comparing each clause of 「*DongMuYooGo YakSungGa*」 on all the sasang -records, we understood that concept.

3. Result

- 1) 「*DongMuYooGo YakSungGa*」 of a literary work of DongMu(東武) which contain special elucidative-method of herb-nature has 18 type of YakSungGa which explain each 27 herbs for the Taeumin, Soyangin and Soeumin. The period of authoship is supposed to the time just before 「*DongyiSuseBowon Gabobon*」 (東醫壽世保元 甲午本)(1894, DongMu 58 years old) or middle of fifties(53-57 years old).
- 2) YakSungGa of 「*DongMuYooGo*」 which is published by the BoGunSung(保健省) of North Korea is supposed to be close to original type. The main meaning of that is the herb-nature which works on the weakest point of each Sasangin. And then the herbs were classified by the diseases and symptoms possessing Bomyungjiju(保命之主), the herb's efficacy is explained at the each constitution.
- 3) The meaning of 「*DongMuYooGo YakSungGa*」 is exposure of the opinion of DongMu's early stage that proposed herb-nature which is applied to the principle of Jang(臟) of Sasangin, reason and purpose to enact newly created prescriptions by the constitutional diseases and symptoms, and the compositional principle of newly created prescription.
- 4) The selection of herbs or cogition of herb-nature of DongMu's pharmacological opinion of his early stage was changed by accumulating clinical experience. So all the newly created prescriptions of 「*DongyiSuseBowon*」 could not be explained by only the herb and the herb-nature on 「*DongMuYooGo YakSungGa*」.

Therefore the purpose of DongMu's YakSungGa is not explaining the symptoms in charge of each herb or classifying the herb by constitution, but offering the principle of composition of prescription of Sasang, from the necessary herb which possess and expand *Bomyungjiju* to nature of herb which is applied to the constitution for treating all the diseases and symptoms by the heavy or light and slow or speedy.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과

** 본 연구는 동국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교신저자: 박성식 주소)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87-2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 사상체질과 전화)031-710-3723

E-mail)parkss@dongguk.edu

1. 緒論

事心身物의 四象論을 중심으로 하는 四象醫學은 四象人의 生理 病理 및 診斷 治療에 이르기까지 既存醫學과 다른 特徵을 가지고 있다. 東武 李濟馬(1837-1900)는 『東醫壽世保元』¹⁾에서 體質病證에 따른 藥理를 주장하여 四象人에 적합한 藥方을 새로 制定하였고, 藥物도 체질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그 理由와 根據에 대한 藥理的 설명은 거의 없다. 이후 『東醫四象新編』²⁾을 비롯한 四象醫學 관련 文獻들³⁾에서도 各 體質에 適用되는 藥物을 區分하고 있을 뿐, 各 藥物의 效能이나 分類 및 方劑構成의 原理에 대한 說明은 없다. 따라서 사상의학계에서는 四象藥物의 效能과 分類에 대한 特徵을 찾기 위한 研究들⁴⁾이 進行되어 왔으나 未洽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 研究들은 既存의 本草의 觀點⁵⁾으로는 四象藥理를 설명하기는 困難하고 새로운 視覺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 동안 사상의학계에는 「東武遺稿 藥性歌」⁶⁾라

하여 四象藥理에 관한 資料가 있었으나, 藥物의 性能에 대한 설명법이 特異하여 그 意味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⁷⁾ 설명된 藥物이 『東醫壽世保元』과도 서로 다른 점이 많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많은 問題點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趙⁸⁾는 四象方劑의 構成에 대한 研究에서 「東武遺稿 藥性歌」內容을 引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東武遺稿 藥性歌」의 著者나 內容에 대한 基本的인 檢討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리고 「東武遺稿 藥性歌」를 전하고 있는 7種의 文獻⁹⁾에서는 모두 이 藥性歌에 대한 설명이 없이 단순히 「東武遺稿」라고 하여 전하고 있으며, 그 內容조차 文獻에 따라 相異한 부분이 많다. 따라서 「東武遺稿 藥性歌」대한 가장 基本的인 檢討가 없이는 이를 바탕으로 한 四象醫學의 藥物이나 方劑에 대한 研究는 原初의 問題點을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東武遺稿 藥性歌」가 과연 東武의 著作인지에 대한 문제, 著作의 時期에 대한 문제, 서로 다르게 기록되고 있는 內容에 대한 眞僞 문제를 검토하여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意味를 정확히 評價하는 것이 四象藥物과 四象方劑에 대한 研究의 基礎 資料로 重要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著者는 「東武遺稿 藥性歌」로 알려진 四象藥

- 1)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影印本. 서울:대성문화사. 1998.
- 2)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서울:문우사. 1929
- 3) 朴奭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醫道韓國社. 1977.,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소나무. 1997.,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重版. 서울:행림출판사. 1990.,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再版. 서울:행림출판. 1995. 등 대부분의 사상의학관계 문헌을 말한다.
- 4)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的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宋炳基.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 使用된 藥材의 本草性能에 關한 統計的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5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關한 文獻 考察(I).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69-261.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關한 文獻 考察(II).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135-180.
李時雨. 東醫壽世保元 處方에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9
金鍾悅.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關한 研究.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5) 陰陽五行論의 原理의 틀 속에서 藥物의 效能을 說明하는 것으로, 藥物의 氣味, 歸經, 昇降浮沈, 形色 등의 特徵을 陰陽五行의 理論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本草의 視覺을 말한다.
- 6) “人蔘 補脾和脾, 熟地黃 補腎和腎, 麥門冬 補肺和肺”

와 같이 전해지는 것을 말하며, 通常적으로 사상의학계에서는 「東武遺稿 藥性歌」라 알려져 있다. 名稱에 대한 說明은 本論중에서 이루어 진다.

- 7) 著者는 「東武遺稿 藥性歌」와 같은 說明法으로 藥物의 效能을 說明한 本草學 書籍은 아직 접한 바 없다.
- 8) 趙煥성은 事心身物의 철학이론으로 四象方劑 構成에 대한 分析을 시도하면서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藥물을 기본으로 설명하면서 사상방계 구성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였다. 趙煥晟.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학회지. 1995;7(2):21-44.
- 9) 梁병무·차광석 번역, 李濟馬 著. 東武遺稿(國譯韓醫學大系 15). 서울:海東醫學社. 1999: 21-98, 146-153.
朴奭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醫道韓國社. 1977:206-207, 283-284, 330.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소나무. 1997:55.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學研究所編. 朝醫學. 의명회 학술부 발행. 1989:59-67.
李道耕 譯編, 李濟馬 原著. 家庭必備 四象要覽. 圓佛敎圓光社. 1964:25-27.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重版. 서울:행림출판사. 1990:15-22.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再版. 서울:행림출판. 1995:234-235, 303-304, 349-350.

性說明法에 관한 資料調査와 檢討를 통하여 몇 가지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東武遺稿 藥性歌」란

현재 東武遺稿라는 이름으로 四象人에 적용되는 藥物의 藥性(藥性歌)을 전하고 있는 文獻은 모두 7種으로 『東醫四象診療醫典』(이하 『醫典』), 北韓 保健省에서 발행한 『東武遺稿』(이하 『北韓遺稿』), 『家庭必備 四象要覽』(이하 『要覽』), 『四象醫學原論』(이하 『原論』), 『東醫四象大典』(이하 『大典』), 『朝醫學』, 『東醫四象要訣』(이하 『要訣』)이다.

『北韓遺稿』¹⁰⁾에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아래에 덧붙여 「先師藥性說歌」라 하여 脾藥에서 26種, 腎藥에서 27種, 肺藥에서 24種에 대한 藥性を 설명하고 이 내용을 四象人 藥材類에서 體質別로 모아 다시 기록하고 있다. 『醫典』을 비롯한 다른 文獻에도 같은 내용이 東武遺稿라고 전해지고 있으나 그 名稱이 전하는 책마다 서로 다르며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나타난다.

첫째는 「東武遺稿 藥性歌」란 명칭으로 『醫典』, 『朝醫學』, 『要訣』 등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둘째는 「東武遺稿 四象人 藥性」이라는 명칭으로 『要覽』, 『原論』, 『大典』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 셋째는 「先師藥性說歌」라는 명칭으로 『北韓遺稿』에 표현되고 있으며, 넷째는 「四象人 藥材類」라는 名稱으로 『北韓遺稿』에서 같은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名稱을 따르는 것이 가장 타당한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東武遺稿 藥性歌」가 기록된 文獻의 出版年代를 기준으로 고려할 때, 『醫典』이 처음이고,¹¹⁾ 다음이 1964년 『要覽』, 1965년

『北韓遺稿』,¹²⁾ 1973년 『原論』,¹³⁾ 1977년 『大典』, 1985년 『朝醫學』, 1991년 『要訣』의 순서로 나타난다. 또한 『北韓遺稿』가 알려지기 전까지 사상체질학계에서는 通常적으로 『醫典』의 표현을 따라 「東武遺稿 藥性歌」라 稱하였다.

따라서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東武遺稿 藥性歌」란 名稱을 처음 사용¹⁴⁾하였으므로 이를 따라 「東武遺稿 四象人 藥性」, 「先師藥性說歌」, 「四象人 藥材類」를 모두 「東武遺稿 藥性歌」라 名稱하는 것도 타당하다 하겠다.

2. 「東武遺稿 藥性歌」의 構成과 文獻別 特徵

「東武遺稿 藥性歌」는 藥性を 독특한 표현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體質에 따라 少陰人 藥性歌, 少陽人 藥性歌, 太陰人 藥性歌로 區分하고 있다. 「東武遺稿 藥性歌」를 전하고 있는 모든 文獻에서 이와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東武遺稿 藥性歌」는 體質別 區別 이외에 독특한 構成形態의 특징이 있다. 「東武遺稿 藥性歌」는 藥性歌의 내용에 해당하는 藥物의 數에 따라 3종류로 구분된다. 첫째는 한가지 藥物이 하나의 藥性歌로 설명된 경우로 11種¹⁵⁾, 둘째는 하나의 藥性歌에 2가지 藥物을 묶어 같은 效能으로 설명하는 경

提供 杏林書院編輯部編纂으로 1961년 出版되었다. 이 책의 첫장은 책명과 다르게 東醫四象診療醫典序로 되어 있는데, 이 序文의 내용은 『東醫四象診療醫典』의 序文과 일치한다. 또 여기에는 『東醫四象診療醫典』의 敍言과 똑같은 敍言이 존재하는데 이 敍言은 庚辰年(1940년)에 杏坡(李泰浩)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東醫四象診療醫典』은 1978년 처음 출판되기 전에 이미 같은 내용이 『實際的 東醫四象診療의 秘訣全』이라는 이름으로 1961년 전에 이미 출판되었으므로 여기서 『東醫四象診療醫典』이라 하였다.

10) 『東武遺稿』. 앞의 책. 21-97, 146-153쪽에 따르면 東武와 관련된 藥性歌는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와 「先師藥性說歌」가 있으나,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는 既存의 藥性歌를 引用하고 있어 본 論文에서는 제외하였다. 추후 「東武先師四象藥性嘗驗古歌」에 관한 研究는 별도로 發表할 豫定이다.

11) 杏林書院에서 『東醫四象診療醫典』은 1978년 李泰浩가 처음 출판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이전에 같은 내용이 다른 책명으로 출판된 바 있었다. 『實際的 東醫四象診療의 秘訣全』이라는 책이 四象醫學普及研究會

12) 1999년 3월 서울의 해동의학사에서 발행한 『東武遺稿』에 따르면 “이 책은 1966년 7월 북한 보건성에서 등사판으로 간행하였다”고 하였으므로, 1966년으로 하였다.

13) 『四象醫學原論』은 1973년 수문사에서 처음 출판되었고, 이후 행림출판에서 출판되고 있으나 내용은 동일하다.

14) 『東醫四象診療醫典』에서 四象醫學的 藥性觀을 설명하면서 少陰人의 藥性歌 少陽人의 藥性歌 太陰人의 藥性歌라 하여 藥物을 설명하고 이를 東武遺稿라 하였다.

15) “人蔘 補脾和脾, 熟地黃 補腎和腎, 麥門冬 補肺和肺”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표 1. 東武遺稿 藥性歌의 構成과 文獻別 特徵

	東醫四象 診療醫典	家庭必備 四象要覽	北韓 東武遺稿	四象醫學原論	東醫四象大典	朝醫學	東醫四象要訣
少陰人 藥物數/數 藥性歌	26 / 18	25 / 18	27 / 18	25 / 17	26 / 17	26 / 18	25 / 18
少陽人 藥物數/數 藥性歌	27 / 18	26 / 18	27 / 18	27 / 18	25 / 19	26 / 18	27 / 18
太陰人 藥物數/數 藥性歌	27 / 18	27 / 18	27 / 18	27 / 18	28 / 20	25 / 17	27 / 18
總 藥物 數/總數 藥性歌	80 / 54	78 / 54	81 / 54	79 / 53	79 / 56	77 / 53	79 / 54
藥性歌의 差異				少陰人에서 巴豆에 대한 藥性歌가 없다	少陰人에서 三稜· 蓬朮과 巴豆에 대한 藥性歌가 없다.	太陰人에서 鬱 金·朱砂에 대한 藥性歌가 없다	
藥物의 差異	少陰人에서 神曲이 없다.	少陰人에서 神曲, 香附子가 없다. 少陽人에서 竹茹 가 없다	少陰人에서 杏花 대신 紅花를 기 록하고 있다.	少陰人에서 神曲과 巴豆가 없다	少陰人에서 神曲과 巴豆가 없고 鬱金이 있다. 少陽人에서 桑椹,竹 瀝,竹茹가 없고 朱砂 가 있다. 太陰人에서 鬱金,朱 砂가 없고, 桑椹,竹 瀝,竹茹가 있다.	少陰人에서 神曲, 少陽人에서 竹茹, 太陰人에서 鬱金 과 朱砂가 없다.	少陰人에서 神曲 과 杏화가 없다
特徵	①藥性歌라 하였다. ②남한에서 전해지는 것 에서는 가장 내용이 충실 하다. ③다른 의서 를 참고한 흔 적이 없다. ③朝醫學과 東醫四象要 訣이 이에 준 하고 있다.	①四象人 藥性 이라 하였다. ②國文과 漢文 을 混用하여 설명하고 있다. ③다른 의서를 참고한 흔적이 별로 없으며, 별 도의 자료를 가 지고 작성한 듯 하다.	①先師藥性說歌 라 하였고, 四象 人藥材類라고도 하였다. ②藥物의 種類나 數, 藥性에 대한 설명이 가장 잘 나타나 있다. 少陰人에서 杏花 대신 紅花를 제 시한 것은 여기 뿐이다. ③東武의 著作物 로 인정하기에 충 분한 내용이며, 전하는 의서 중 가 장 原形에 가깝다.	①四象人 藥性이라 하였다. ②東醫四象大典과 내용이 유사하나 藥 物의 所屬을 임의 로 바꾸지 않았다.	①四象人 藥性이라 하였다. ②四象原論과 類似 하나 誤記가 많고, 藥物의 所屬을 著者 임의로 바꾸었다. ③藥性歌에 대한 기 본적인 검토 없이 단 순히 體質에 적합한 藥物을 구분하였다. ④著者는 東武遺稿 藥性歌의 意味를 과 약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①藥性歌라 하였 다. ②東醫四象診療 醫典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③논란의 여지가 있는 藥物은 기 록하지 않고 있 다.	①藥性歌라 하 였다. ②東醫四象診療 醫典의 내용에 준하고 있다.

우가 6種¹⁶⁾, 셋째는 4가지 藥物을 묶어 같은 效能으
로 설명하는 경우가 1種¹⁷⁾으로 모두 18種의 藥性歌

가 있다.

기존의 모든 藥性歌는 매 藥마다 하나의 藥性を
설명하고 있을 뿐, 2가지 이상의 藥物을 같은 效能
을 가진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¹⁸⁾

16) “藿香 砂仁 安氣定魄, 桑椹 枸杞子 安精定志, 酸棗
仁 龍眼肉 安神定意”와 같은 경우를 말한다.

17)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麥
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蓮肉,
薏苡 白果 黃栗 開肺之胃氣而消食進食”과 같은 경우
를 말한다.

18) 일반적으로 약물의 효능은 “藿香辛溫能止嘔吐 發散風寒
霍亂爲主, 砂仁性溫養胃進食 止痛安胎通經破滯”와 같이
砂仁和 藿香을 완전히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砂仁 藿香 安氣定魄”과 같이 한가지 藥性에 2

이러한 설명 방법이 매우 독특하다.

한 體質 마다 18種으로 구성되는 藥性歌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에서 體質에 따라 臟의 名稱만 바꾸어 같은 설명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總 54種(少陰人 18種, 少陽人 18種, 太陰人 18種)이 된다(표 1).

그런데 이 藥性歌를 전하고 있는 책마다 藥性歌의 數와 體質 別 藥物 數를 比較한 바 서로 差異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北韓遺稿』의 藥性歌가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에 있어 가장 일관된 논리로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

3. 東武遺稿 藥性歌의 內容

1) 少陰人 藥性歌의 內容 分析

少陰人 藥性歌는 27種의 藥物을 效能에 따라 18種의 說明法으로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醫書에 따라 藥物에 差異가 있다. 『北韓遺稿』에는 27種의 藥物이 설명되고, 『醫典』, 『朝醫學』, 『大典』에는 26種의 藥物이 설명되며, 『原論』, 『要覽』, 『要訣』에는 25種의 藥物이 설명되고 있다(표 1).

少陰人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意味를 비교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표 2).

人參의 補脾和脾는 脾를 補하고 調和시키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며, 白朮의 健脾直脾는 脾를 튼튼하게 하고 곧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고 있다.

炙甘草의 固脾立脾는 脾를 固攝하고 바로 세우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北韓遺稿』와 『朝醫學』에서는 炙甘草로, 『醫典』과 『要覽』, 『要訣』에서는 炙甘草, 『原論』과 『大典』에서는 甘草로 표현되어 있다. 東武의 著書 중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¹⁹⁾이 草本卷이라 한다에서는 甘草를 生用하는 경우도 있으나,²⁰⁾ 『東醫壽世保元』 甲午本²¹⁾과 辛丑本²²⁾에서는

가치 이상의 藥物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19) 金九翊(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20) “彌猴桃湯 治太陽人裏證 彌猴桃 葡萄 各三錢 白芍藥 生甘草 各一錢”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卷之三 太陽人 藥方』, 앞의 책.

21) 『東醫壽世保元』은 東武 이제마에 의해 작성된 책으로, 東武 나이 58세때인 甲午年(1958년)에 처음 完成되었다가 후일 庚子年(1900년)에 들어 가실 때 까지 수정 보완하였다. 2000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李聖洙(東武公의 從曾孫)氏가 所藏하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抄錄

모두 甘草 灸用이라 하였다. 따라서 炙甘草가 타당하다.

當歸의 ‘壯脾而有內守之力’은 脾를 굳세게 하며 안을 지키는 힘이 있고, 川芎의 ‘壯脾而有外揚之勢’은 脾를 굳세게 하며 밖으로 떨쳐내는 기세가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當歸는 內守를 川芎은 外揚의 效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

官桂는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이라 하여 脾를 굳세게 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朝醫學』에서는 ‘壯脾而充足內外之力’이라 하여 ‘有’가 없이 藥性을 설명하고 있으나 마땅히 ‘有’가 있어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다.

陳皮는 ‘錯綜脾氣 參伍勻調’라 하여 뒤섞인 脾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였다. 『朝醫學』, 『原論』, 『要訣』에는 錯綜脾氣之參伍勻調라 하여 ‘之’가 있으나, 『北韓遺稿』에는 ‘錯綜脾氣 參伍勻調’라 하여 ‘之’가 없다. 『醫典』에는 ‘錯綜脾氣의 參伍勻調’라 하였고, 『大典』에는 ‘錯綜脾氣의之參伍勻調’라 하였다. 여기에는 ‘之’의 有無와 ‘參伍’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參伍’를 이리저리 뒤섞어 본다는 뜻²³⁾으로 보면 ‘錯綜’과 ‘參伍’는 모두 섞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때는 ‘之’를 사용하여 ‘錯綜脾氣之參伍 勻調’로 표현해야 하나 ‘錯綜’과 ‘參伍’의 의미가 중복된다. 그러나 ‘參伍’를 脈搏의 不均衡을 調整시킨다는 뜻으로 보는 경우²⁴⁾로 보면

한 筆寫本을 발굴하여 研究資料로 삼게 하였다. 이하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은 이 筆寫本을 지칭한다.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22) 『東醫壽世保元』은 甲午年(1958년)에 完成된 後, 庚子年(1900년)까지 수정 보완된 내용을 東武公 死後인 辛丑年(1901년)에 門徒들에 의해 甲午本과 庚子本을 합하여 처음으로 出版되었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 內容 比較는 甲午本과 庚子本을 比較함이 마땅하나 현재 庚子本을 확인할 수 없는 까닭에 처음 出版된 辛丑本을 基準으로 하였다.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 所藏되어 있던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을 1998년 사상체질의학회에서 影印하여 發行하였다.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影印本. 서울:대성문화사. 1998.

23) 金敬琢 譯著. 周易. 서울:明文堂. 1979:401-402., 李基東 譯解. 周易講說 下.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347-348.

24) 『東醫四象診療醫典』, 앞의 책. 15쪽, 『東醫四象要訣』, 앞의 책. 55쪽에서는 “參伍를 ”或三或伍하여 相互錯綜되는 것을 말함이니 여기에는 脾氣의 錯綜으로 인한 脈搏의 不均等을 調整시킨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표 2. 少陰人 藥性歌 분석

번호	少陰人 藥性歌	比較分析	評價
1	人蔘 補脾和脾	同一하게 표현됨.	
2	白朮 健脾直脾	同一하게 표현됨.	
3	炙甘草 固脾立脾	『醫典』, 『要覽』, 『要訣』에는 炙甘草로, 『北韓遺稿』, 『朝醫學』에는 炙甘草로, 『原論』, 『大典』에는 甘草로 표현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에 근거해보면 少陰人약에서 甘草는 灸用이라 했으므로 炙甘草가 타당하다.
4	當歸 壯脾而有內守之力	同一하게 표현됨.	
5	川芎 壯脾而有外揚之勢	同一하게 표현됨.	
6	官桂 壯脾而有充足內外之力	『朝醫學』에는 '有'가 없다.	'有'가 있는 것이 타당하다.
7	陳皮 錯綜脾氣(之)參伍勻調	『北韓遺稿』에는 '之'없고, 『朝醫學』, 『原論』, 『要訣』에는 '之'있고, 『醫典』에는 '의'로 되어 있고, 『大典』에는 '의之'로 되어 있다. 『要覽』에는 '陳皮는 脾氣를 勻調하고'로 되어 있다.	『周易·繫辭傳』에 나오는 錯綜과 參伍는 이리저리 뒤섞인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錯綜脾氣 參伍勻調』는 '이리저리 뒤섞인 脾氣를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8	白芍藥 收斂脾元	同一하게 표현됨.	
9	茯苓 砂仁 安定氣定魂(魂)	『北韓遺稿』에는 '安氣定魂'으로 되어 있다.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定氣定魂'으로 되어 있고, 『要覽』에는 '氣와 魂을 安定케하고'로 되어 있다.	『北韓遺稿』의 '安氣定魂'이 타당하다. 少陽人과 太陰人에 기준하면 安(定)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氣는 肺神脾氣肝血腎精에서 脾氣를 말하고, 魂은 肺意脾魂肝魂腎志에서 脾魂을 말한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의 폐意비慮간操心志를 기준하면 '安氣定魂'도 가능하다. 『北韓遺稿』에 慮魂魂志의 기준이 있어 이것이 『東醫壽世保元·臟腑論』보다 먼저 작성된 증거가 된다.
10	乾薑 肉豆蔻 溫肉裏	『北韓遺稿』에만 '肉裏'로 표현함. 다른 의서에는 '肉理'로 표현함.	肉理가 타당하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에 따르면 脾에는 筋이다. 『東醫壽世保元·臟腑論』보다 먼저 작성된 근거가 된다.
11	製半夏 炮南星 消脾痰	同一하게 표현됨.	
12	紫蘇葉 蔥白 解脾(肌)之表邪	『醫典』, 『原論』, 『大典』, 『要訣』에는 '肌之表邪'로 표현하고, 『北韓遺稿』, 『朝醫學』, 『要覽』에는 '脾之表邪'로 표현하였다. 『北韓遺稿』에는 紫蘇葉으로 되어 있다.	'解脾之表邪'가 타당. 蘇葉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는 모두 紫蘇葉으로, 辛丑本에는 紫蘇葉과 蘇葉이 함께 나타난다.
13	桃仁 紅花(杏花) 醒脾之眞氣	『北韓遺稿』에는 桃仁, 紅花로 표현되고,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覽』에는 桃仁, 杏花로 되어 있고, 『要訣』에는 桃仁만 언급하고 있다. 특히 『要覽』에는 少陰人의 桃仁 杏花는 傳之錯誤인가 의심한다는 註가 있다.	桃仁, 紅花가 타당하다. 『草本卷』 卷三 少陰藥方 末尾에서 蘇木 紅花 治瘀血이라 하였다.
14	蓬朮 三稜 滌脾之穢氣	『朝醫學』에만 '滌脾之穢氣'로 되어 있다.	'滌脾之穢氣'가 타당하다.
15	神曲 木香 丁香 香附子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	神曲은 『北韓遺稿』에만 나온다.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神曲이 없으며, 『要覽』에는 香附子도 없다.	少陽人과 太陰人에서 消食進食으로 표현된 약물은 모두 4종으로 되어 있어 『北韓遺稿』의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가 타당하다.
16	炮附子 爲脾元帥之藥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 冷氣侮脾周臣 凌侵於胃之四圍者	同一하게 표현됨.	
17	紫河車 能除脾之久病	同一하게 표현됨.	『北韓遺稿』에는 藥性古歌에서 紫河車를 脾藥과 腎藥으로 분류하기도 했으나, 사상인 약재류에서는 少陰人에서 설명하고 있다. 『醫典』, 『要覽』, 『大典』, 『原論』, 『朝醫學』, 『要訣』에서 모두 少陰人에서 같이 표현하고 있다.
18	巴豆 通脾之關格	『原論』과 『大典』에는 이 내용이 없다.	『原論』과 『大典』의 오류이다.

뒤섞인 脾氣를 조정하여 고르게 한다는 의미는 ‘之’ 없이 ‘錯綜脾氣 參伍勻調’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따라서 『北韓遺稿』에서는 “陳皮 錯綜脾氣 參伍勻調 뒤섞인 脾氣를 가지런하게 짝맞추고 고르게 조절한다”라고 표현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少陽人의 牧丹皮, 太陰人의 石菖蒲에서도 少陰人의 陳皮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白芍藥의 ‘收斂脾元’은 脾의 元氣를 거두어 들이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草本卷』에서는 白芍藥을 太陽人에서 응용하였으며, 白芍藥은 肝藥이나 炒用하면 脾藥이라고 藥性을 분별하였다.²⁵⁾ 이를 고려하면 藥性歌는 『草本卷』보다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藿香과 砂仁의 ‘安氣定魄’은 氣를 편안하게 하고 魄을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醫典』, 『朝醫學』, 『原論』, 『要覽』, 『要訣』에는 ‘定氣定魄’이라 하였고, 『北韓遺稿』에는 ‘安氣定魄’이라 하고, 藿香을 安氣²⁶⁾, 砂仁을 定魄²⁷⁾으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安氣’인지 ‘定氣’인지, ‘定魄’인지 ‘定魄’인지가 문제가 된다. 이것을 少陽人 黑桑椹과 枸杞子를 ‘安精定志’, 太陰人 酸棗仁和 龍眼肉을 ‘安神定意’라 한 것과 비교하면 ‘安○定○’이 옳다. 또한 ‘魄’과 ‘魂’의 표현은 『北韓遺稿』에서 “肺神·脾氣·肝血·腎精”과 “肺意·脾魄·肝魂·腎志”의 표현²⁸⁾으로 볼 때 少陰人에는 ‘魄’이 옳다. 하지만 이것은 『東醫壽世保元·臟腑論』²⁹⁾에서 臟膜血精의 後四海는 神氣血精의 所舍이고 神靈魂魄이 所藏되는 곳이며, 津膏油液의 前四海는 意慮操志가 所藏되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 논리에 따르면 ‘安氣定魄’로 표현되어야 하나 ‘安氣定魄’이라 한 것은 『東醫壽世保元·臟腑論』과 다른 내용이다. 藥性歌가 『東醫壽世保元·臟腑論』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된다.

乾薑의 ‘溫肉理’는 肌肉을 따뜻하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北韓遺稿』에는 ‘肉裏’로 다른 의서에는 ‘肉理’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北韓遺稿』의 다른 곳에 “脾分虛則肉理寒”³⁰⁾이라 한 표현이 있는 것을 볼 때 ‘肉理’가 옳다. 하지만 『東醫壽世保元·臟腑論』³¹⁾에서는 ‘筋’이 脾黨에 속하고 ‘肉’이 肝黨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東醫壽世保元·臟腑論』과 다른 내용을 보인다. 藥性歌가 『東醫壽世保元·臟腑論』보다 먼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이다.

製半夏와 炮南星的 ‘消脾痰’은 脾의 痰을 없애는 藥性을 설명하는 것이다.

紫蘇葉과 蔥白의 ‘解脾之表邪’는 脾臟의 表邪를 풀어내는 藥性을 설명한 것으로 『北韓遺稿』에서만 蘇葉을 紫蘇葉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문헌에서는 蘇葉이라 하였다. 『醫典』과 『原論』, 『要訣』에서는 ‘解肌之表邪’라 하였으나 『北韓遺稿』와 『朝醫學』, 『要覽』에서는 ‘脾의 表邪를 解한다’고 하였다. 少陽人의 羌活 防風을 ‘解腎之表邪’로, 太陰人의 麻黃 款冬花를 ‘解肝之表邪’라 한 것을 보면 少陰人에서는 ‘解脾之表邪’라 한 표현이 옳다. 또한 『北韓遺稿』에는 이와 별도로 少陰人의 發表에 輕證이면 藿香 川芎 蘇葉 蔥白을 쓰고, 重證이면 桂枝湯을 사용하라고도 하였다.³²⁾

桃仁和 紅花의 ‘醒脾之眞氣’는 脾의 眞氣를 깨워 일으키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특히 ‘紅花’는 『北韓遺稿』에만 나타나고 다른 문헌에는 모두 ‘杏花’로 표현되어 있다. 紅花나 杏花 모두 『東醫壽世保元』에서는 한번도 사용된 바 없는 藥이다. 『草本卷』에서

25)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앞의 책. “卷之三 太陽人藥方 獼猴桃湯 治太陽人裏證 獼猴桃 葡萄 各三錢 白芍藥 生甘草 各一錢”, “升麻自是腎藥 白芍藥自是肝藥 而炒用則入於脾藥”

26) 『東武遺稿』, 앞의 책. 27쪽

27) 『東武遺稿』, 앞의 책. 32쪽

28) “肺意決則能哭泣 脾魄壯則能歌唱 肝魂定則能言談 腎志裕則能嘻笑”, “是故 善養肺者 戒貪慾而善保神也 善養脾者 戒喜好而善保氣也 善養肝者 戒忿怒而善保血也 善養腎者 戒勇敢而善保精也” 『東武遺稿』, 앞의 책. 160쪽. 163쪽

29) “水穀溫氣.....臟海者 神之所舍也....., 水穀熱氣.....膜海者 氣之所舍也....., 水穀涼氣.....血海者 血之所舍也....., 水穀寒氣.....精海者 精之所舍也.....”, “臟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津海藏意 膏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東醫壽世保元·臟腑論』

30) “肺分虛則皮毛焦 脾分虛則肉理寒 肝分虛則筋脈酸 腎分虛則骨髓枯” 『東武遺稿』, 앞의 책. 160쪽

31) “水穀溫氣..... 胃脘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熱氣..... 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涼氣..... 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寒氣..... 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東醫壽世保元·臟腑論』

32) “少陰 發表 輕則藿香川芎蘇葉蔥白 重則桂枝湯” 『東武遺稿』, 앞의 책. 169쪽

는 杏花를 사용한 경우는 없으나, 紅花는 少陰人 瘀血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하였다.³³⁾ 따라서 杏花보다는 紅花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北韓遺稿』가 가장 정확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편 『東醫四象新編』에는 紅花가 少陽人 藥으로 분류되어 있으나³⁴⁾, 『北韓遺稿』에는 紅花가 脾藥으로 분류되어 少陰人에 응용되고 있다.³⁵⁾

蓬朮과 三稜의 ‘滌脾之滌氣’는 脾의 더러운 기운을 깨끗이 씻어내는 藥性を 설명하였다.

神曲, 木香, 丁香, 香附子の ‘開脾之胃氣而消食進食’은 脾의 胃氣(少陰人의 胃氣)를 열어주어 飲食을 消化시키고 입맛을 나게 하는 藥性を 설명하는 것이다. 神曲은 『北韓遺稿』에만 나오며 다른 文獻에는 神曲을 빼고 설명하고 있다. 『要覽』에서는 香附子도 없이 木香과 丁香만으로 설명하고 있다. 少陽人에서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를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이라 하고, 太陰人에서 蓮肉 薏苡仁 白果 黃粟을 ‘開肺之胃氣而消食進食’이라 하면서 각 4種의 藥物을 언급한 것을 보면 神曲을 포함하여 4種으로 설명하고 있는 『北韓遺稿』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다. 다른 문헌에서 神曲을 제외한 것은 少陰人 藥으로 구분하기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北韓遺稿』에는 藥性歌에서와 같이 神曲을 少陰人 藥이라 하고³⁶⁾ 『草本卷』에서도 少陰人 藥方에서 錢氏異功散에 滯를 끼면 神曲을 加하는 경우³⁷⁾를 제시하고 있어 神曲을 少陰人 藥으로 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藥性歌가 『草本卷』의 시각과 일부 유사한 점을 보인다. 그러나 『東醫壽世保元』³⁸⁾에는 神曲을

少陽人 藥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丁香은 암수를 구분하여 수꽃의 꽃봉오리로 脾의 胃氣를 열어주며, 암꽃의 꽃봉오리는 鷄舌香으로 飲食을 消化시키고 식욕이 당기게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³⁹⁾

炮附子の ‘爲脾元帥之藥 能驅逐脾元虛弱而不能除外冷 冷氣侮脾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는 炮附子가 脾(少陰人)의 으뜸가는 藥이 되는데, 脾의 元氣가 虛弱하여 바깥의 冷氣를 없애지 못하여 冷氣가 脾를 업신여겨 두루 돌아다니면서 胃의 주위에 侵犯하는 冷氣를 없애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즉 炮附子是 少陽人의 石膏, 太陰人의 熊膽과 같이 少陰人 病에 있어서는 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는 藥이다.

紫河車의 ‘能除脾之久病’은 脾의 오래된 병을 제거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紫河車는 少陰人과 少陽人의 藥으로 혼용되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⁴⁰⁾ 그러나 藥性歌를 기록하고 있는 文獻에서는 모두 같이 표현하고 있다.

巴豆의 ‘通脾之關格’은 脾의 關格을 통하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原論』에서는 巴豆에 대한 藥性歌가 빠져 있다. 『北韓遺稿』에는 巴豆를 少陰人 關格에 사용하는 내용이 藥性歌 이외에도 甘遂 大黃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⁴¹⁾

後消積丸에서, 少陽人 元明經驗方중 肥兒丸에서, 太陰人 唐宋明經驗方중 牛黃清心丸에서 神曲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三稜消積丸은 단순히 少陰人 巴豆 6方중 하나로 소개되어 있어 의미를 두기 어렵고, 牛黃清心丸에서는 神曲을 去하라고 하였으며, 肥兒丸에서는 神曲을 去하라는 표현이 없다. 따라서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神曲을 少陽人 약으로 보았다고 하겠다.

“肥兒丸 胡黃連 五錢 使君子肉 四錢 五分 人蔘 黃連 神麩 麥芽 山查肉 各三錢 五分 白茯苓 白朮 灸甘草 各三錢 蘆薈煨 二錢 五分 右爲末 黃米糊和丸 菘豆大 米飲下 二三丸 此方 出於龔信醫鑑書中 治小兒疳積 ○今考更定 此方 當去人蔘 白朮 山查肉 甘草而使君子一味 未能經驗 的知藥性故 不敢輕論” 『東醫壽世保元·少陽人汎論』

39) “雄爲丁香 丁香開脾之胃氣 而雌鷄舌香消食進食” 『東武遺稿』. 앞의 책. 31쪽

40) 紫河車는 『草本卷』이나 『東醫壽世保元』에서 한번도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東武遺稿』에서는 脾藥(49쪽)과 腎藥(82쪽)에서 중복되게 나타난다.

41) “太陰人 關格 瓜蒂, 少陽人 關格 甘遂, 少陰人 關格 巴豆” 『東武遺稿』. 앞의 책. 219쪽

33) 『蘇木 紅花 治瘀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卷之三 少陰藥方』

34) 『東醫四象新編』. 앞의 책. 少陽人要藥 1쪽

35) “紅花辛溫消瘀熱 多則通經少養血 ○紅花 醒脾之眞氣” 『東武遺稿』. 앞의 책. 48쪽

36) 『東武遺稿』. 앞의 책. 48쪽에서는 神曲을 脾藥으로 “神曲味甘善開胃 消食破結下痰氣 腎藥亦見”이라 설명하고, 86쪽에서는 “神曲味甘 開胃消食 破結逐痰 調中下氣(少陰)”이라 하여 脾藥과 腎藥에 같이 나타나지만 少陰人 藥이라는 註를 표시하고 있다.

37) “錢氏異功散 治脾胃虛弱 飲食鮮少 挾滯加山查 神曲 砂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卷之三 少陰藥方』

38) 『東醫壽世保元』에는 神曲이 新定方에서 활용된 바는 없으나 총 3회 나온다. 즉 少陰人 宋元明經驗方중 三

2) 少陽人 藥性歌의 內容 分析

少陽人 藥性歌도 27種의 藥物을 效能에 따라 18種의 說明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醫書에 따라 藥物에 차이가 있다. 竹茹를 少陽人의 ‘開腎之胃氣而消食進食’하는 藥性으로 설명하는 『北韓遺稿』, 『醫典』, 『原論』, 『要訣』에는 27種의 藥物이 있으나, 『朝醫學』, 『要覽』에는 竹茹가 빠진 26種의 藥物이 설명되고 있다. 『大典』에는 竹茹만이 아니라 桑椹, 竹瀝이 없는 반면 朱砂를 少陽人에 포함하고 있어 25種의 藥物을 설명하고 있다(표 1).

少陽人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意味를 比較 分析하면 다음과 같다(표 3).

熟地黃의 ‘補腎和腎’은 腎을 補하고 調和시키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며, 山茱萸의 ‘健腎直腎’은 腎을 튼튼하게 하고 곧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며, 茯苓의 ‘固腎立腎’은 腎을 固攝하고 바로 세우는 藥性を 설명하고 있다.

知母의 ‘壯腎而有內守之力’은 腎을 굳세게 하며 안으로 지키는 힘이 있고, 澤瀉의 ‘壯腎而有外揚之勢’는 腎을 굳세게 하며 밖으로 펼쳐내는 기세가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知母는 內守를 澤瀉는 外揚의 效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

木通의 ‘壯腎而有充足內外之力’은 腎을 굳세게 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朝醫學』에서는 ‘壯腎而充足內外之力’이라 하여 ‘有’가 빠져 있으나 마땅히 ‘有’가 있어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며, 『大典』에는 ‘壯腎而有充’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설명이 부족하다.

牧丹皮의 ‘錯綜腎氣 參伍勻調’는 뒤섞인 腎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朝醫學』, 『原論』, 『要訣』에는 ‘錯綜脾氣之參伍勻調’라 하여 ‘之’가 있으나 『北韓遺稿』에는 ‘之’가 없다. 『北韓遺稿』에서 ‘牧丹皮 錯綜腎氣 參伍勻調라 하고, 뒤섞인 腎氣를 가지런하게 짝맞추고 고르게 조절한다’고 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之’의 有無에 대한 문제와 意味의 差異는 이미 少陰人의 陳皮에서 설명하였다.

黃栢의 ‘收斂腎元’은 腎의 元氣를 거두어들이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黑桑椹과 枸杞子의 ‘安精定志’는 精을 편안하게 하고 志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醫典』, 『朝醫學』, 『原論』, 『要訣』에는 桑椹

으로 표현하였고, 『北韓遺稿』에는 黑桑椹으로, 『要覽』에는 款椹으로 표현되어 있다. 『大典』에서는 桑椹을 太陰人에서 설명하고 있으며 少陽人에서는 枸杞子만 들고 있다.⁴²⁾ 黑桑椹이나 桑椹은 같은 藥을 지칭한다. 『要覽』의 款椹은 桑椹의 誤記로 보인다. 『北韓遺稿』에는 黑桑椹을 少陽人에서 설명하면서도 太陰人 藥으로 분류한 곳도 있으며,⁴³⁾ 枸杞子는 腎藥에서 藥性を 설명할 때는 滋骨髓라고도 하였다.⁴⁴⁾ 桑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藥物이나,⁴⁵⁾ 여기서는 枸杞子和 함께 精과 志를 안정시키는 藥物로 보아야 한다.⁴⁶⁾ 『東醫壽世保元』에서 桑椹이 사용된 바는 없다.

石花, 童便의 ‘滋骨髓’는 骨髓를 滋養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北韓遺稿』에는 ‘滋骨髓’로 하였고, 다른 문헌에서는 모두 ‘溢骨髓’라 하였다. 그러나 骨髓에 도움을 준다는 의미는 ‘滋’로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한 표현이다.

瓜蒌仁, 竹瀝의 ‘豁腎痰’은 腎의 痰을 뚫리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醫典』과 『要訣』에는 竹瀝을 太陰人 藥으로 보아 傳書의 誤로 보았고, 『大典』에서는 竹瀝을 少陽人에서 언급하지 않고 太陰人에서 설명한다. 『北韓遺稿』에는 竹瀝을 少陽人 卒中風藥에 黃蓮과 함께 사용하기도 하였고,⁴⁷⁾ 少陽人

42) 『東醫四象大典』 앞의 책. 284쪽과 330쪽에는 少陽人의 藥性에서 枸杞子를 安精定志라 하고, 太陰人의 藥性에서 桑椹을 安精定志라 하였다. 즉 藥性的 說明 內容은 고려하지 않은 채 약물만 구분하여 枸杞子는 少陽人, 桑椹은 太陰人에서 기록하였다. 이러한 점이 『東醫四象大典』에서 약물의 체질별 구별에만 중점을 두었을 뿐 東武遺稿 藥性歌의 의미를 소홀히 한 까닭이라 하겠으며, 東武遺稿 藥性歌의 原形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였다.

43) 『東武遺稿』 앞의 책. 92쪽 腎藥에서 “黑桑椹 ○安精定志 太陰人”, 151쪽 四象人 藥材類에서 “黑桑椹 枸杞子 安精定志”이라 하였다.

44) 북한 동무유고 80쪽, “枸杞甘溫 添精固髓 明目祛風 陰奧陽起 ○枸杞子 滋骨髓”

45) 『東武遺稿』에 나타나는 이러한 문제는 처음 脾藥, 肺藥, 腎藥, 肝藥으로 분류한 것에 동무의 생각이 바뀌었거나, 後人의 加筆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四象人 藥材類에는 東武遺稿 藥性歌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46) 여기서 精과 志를 안정시킨다는 의미는 少陰人에서 氣와 魄, 太陰人에서 神과 意를 안정시킨다는 의미와 대비된다.

47) 『東武遺稿』 앞의 책. 175쪽. “少陽人 中風 瀉青丸 本

痰藥에서도 설명하였다.⁴⁸⁾ 하지만 『東醫壽世保元』에서 竹瀝이 응용된 바가 없다.

羌活, 防風의 ‘解腎之表邪 而羌活優力’는 腎의 表邪를 풀어주는데 羌活이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醫典』과 『要訣』에는 解腎氣之表邪라 하여 ‘氣’가 포함되어 있으나 少陰人의 解脾之表邪와 太陰人의 解肺之表邪를 고려할 때 ‘氣’가 없는 것이 타당하다. 羌活優力을 『朝醫學』에는 ‘羌活之尤佳’로 표현하였고, 『要覽』에는 羌活이 뛰어난다는 표현이 없으나 羌活優力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다. 發表시키는데 있어 愚劣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北韓遺稿』의 發表藥 설명에는 “少陽人 發表에 輕證이면 升麻 葛根 防風을 쓰고 重證이면 羌活 柴胡 荊芥 牛蒡子를 사용하라”⁴⁹⁾고 하였다. 防風이 輕證에 쓰이고 羌活이 重證에 쓰인 것을 보면 東武는 羌活의 發表 效能을 더 뛰어난 것으로 파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羌活과 防風을 補陰藥이라 하였다.⁵⁰⁾

黃蓮, 山梔子의 ‘醒腎之眞氣’는 腎의 眞氣를 깨워 일으키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北韓遺稿』에만 山梔子로 나와 있고 다른 문헌에는 모두 梔子로 기록되어 있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山梔子로 되어 있다.⁵¹⁾ 梔子和 山梔子は 같은 약이나 山梔子가 더 타당하다.

滑石, 豬苓의 ‘滌腎之濊氣’는 腎의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方減諸種只角防風羌活山梔子草龍膽 加黃蓮竹瀝 則尤妙也”

- 48) 『東武遺稿』. 앞의 책. 178쪽. “肺之痰藥 黃芩青礞石也 脾之痰藥 半夏南星也 腎之痰藥 竹瀝瓜蒌仁也 肝之痰藥 五加皮木瓜也”
- 49) 『東武遺稿』. 앞의 책. 169쪽. “少陽 發表 輕則升麻葛根防風 重則羌活柴胡荊芥牛蒡子” 하지만 升麻와 葛根은 『草本卷』에서부터 『東醫壽世保元』까지 모두 太陰人의 藥으로 구분되어 사용된 것을 볼 때 『東武遺稿』이 내용은 東武의 初期 생각으로 추측이 되고 이 視覺에서 藥性歌가 작성되었다면 『草本卷』, 作成時期보다 앞서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50) “荊芥 防風 羌活 獨活 俱是補陰藥 荊芥 大清胸膈散風 羌獨 大補膀胱眞陰” 『東醫壽世保元』·少陽人 汎論』
- 51) 『東醫壽世保元』新定方 가운데에는 涼膈散火湯과 忍冬藤地骨皮湯에서 山梔子가 사용되었고, 梔子가 사용된 곳은 없다. 經驗方 가운데에는 茵陳蒿湯, 瘰癧丸, 涼膈散에서 梔子, 導赤散에서 山梔子가 사용되었다.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의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은 腎(少陽人)의 胃氣를 열어주어 음식을 소화시키고 입맛을 나게 하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原論』에는 生地黃 대신에 生薑으로 되어 있으나 誤記이며, 『朝醫學』과 『要覽』에는 竹茹없이 3種類만 설명하였다. 『大典』에서는 竹茹를 太陰人에서 설명하고 여기에는 3種類만 기록하였다.⁵²⁾ 『北韓遺稿』에는 竹茹를 少陽人 藥으로 설명하고 있으나,⁵³⁾ 『東醫四象新編』에는 太陰人 藥으로 분류되어 있다.⁵⁴⁾

石膏의 ‘爲腎元帥之藥 能驅逐腎元虛弱而不能制外熱 熱氣侮腎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는 石膏가 腎(少陽人)의 으뜸가는 藥이 되는데, 腎의 元氣가 虛弱하여 바깥의 熱氣를 없애지 못하여 熱氣가 腎을 업신여겨 두루 돌아다니면서 胃의 주위에 侵犯하는 熱氣를 없애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즉 少陽人에 있어 將軍과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 되는 藥이다. 『原論』, 『大典』에는 “周匝”을 “周一廻”로 표현하고 있으나 ‘周匝’이 타당하며, 『大典』에는 ‘胃之四圍者’를 ‘胃之六四圍府’로 표현하였으나 잘못된 표현이다.

輕粉의 ‘能除腎之久病’은 腎의 오래된 病을 능히 제거할 수 있다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甘遂의 ‘通腎之結胸’은 腎의 結胸을 통하게 하는 藥性を 설명하는 것이다. 『北韓遺稿』에는 감수를 少陽人 關格에 사용한다고도 하였다.⁵⁵⁾ 여기서 甘遂가 少陽人 結胸에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少陽人 關格에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東武가 말하는 “甘遂 通腎之結胸”이라는 표현과 “少陽人 關格 甘遂”라는 표현은 甘遂의 適應症이 病症을 중심으로 結胸이나, 關格이나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래 위로 통하지 않고 꼭 막혀 있는 病證(일반적으로 關格이라 한다)을 설명함에 있어, 少陰人이 아래위로 막혀 통하지 않는 것을 關格,

- 52) 이 부분도 약물의 체질별 분류에만 치중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다.
- 53) 『東武遺稿』. 앞의 책. 92쪽에는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이라 하여 腎藥에 설명하고 있고, 152쪽에는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이라 하여 少陽人 藥材類에서 설명하고 있다.
- 54) 『東醫四象新編』. 앞의 책. 太陰人 要藥 1쪽.
- 55) “太陰人 關格 瓜蒂, 少陽人 關格 甘遂, 少陰人 關格 巴豆” 『東武遺稿』. 앞의 책. 219쪽.

표 3. 少陽人 藥性歌 分析

번호	少陽人 藥性歌	比較分析	評價
1	熟地黄 補腎和腎	同一하게 표현됨.	
2	山茱萸 健腎直腎	同一하게 표현됨.	
3	茯苓 固腎立腎	同一하게 표현됨.	
4	知母 壯腎而有內守之力	同一하게 표현됨.	
5	澤瀉 壯腎而有外攘之勢	同一하게 표현됨.	
6	木通 壯腎而有充足內外之力	『朝醫學』에는 '有'없다 『大典』에는 '壯腎而有充'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有'있는 것이 타당하다.
7	牡丹皮 錯綜腎氣之參伍勻調	『北韓遺稿』에는 '之'없고,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之'있고, 『醫典』에는 '의'로 되어 있다. 『要覽』에는 '牡丹皮는 腎氣를 勻調하고'로 되어 있다.	『周易·繫辭傳』에 나오는 錯綜과 參伍는 이리저리 뒤섞인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錯綜腎氣之參伍勻調'은 '이리 저리 뒤섞인 腎氣를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8	黃栢 收斂腎元	同一하게 표현됨.	
9	黑桑椹 拘杞子 安精定志	桑椹을 『北韓遺稿』에는 黑桑椹으로 되어 있고, 『要覽』에는 歌椹으로 표현 되어 있다. 『大典』에는 桑椹을 太陰人에서 설명하고, 少陽人에서는 拘杞子만 들고 있다.	藥性歌에는 桑椹이 있는 것이 타당하고, 桑椹이나 黑桑椹 모두 뽕나무의 열매(오디)로 익은 정도에 따라 부르는 말이다.
10	石花 童便 滋(溢)骨髓	『北韓遺稿』에만 '滋'로 표현되어 있고,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 모두 '溢'로 표현하였다. 『要覽』에는 '石花 童便은 骨髓를 채운다'라고 표현하였다.	少陰人의 溫肉理와 太陰人의 開皮毛를 고려하면 骨髓를 채운다는 뜻으로는 '滋'가 '溢'보다 타당하다.
11	瓜蒌仁 竹瀝 豁腎痰	『醫典』과 『要訣』에서는 '竹瀝은 太陰人藥으로 傳書의 誤가 아닌가 한다'는 註가 있고, 『北韓遺稿』에는 '東武의 저술중에 竹瀝을 少陽人에 응용한 예가 있고, 竹茹와 竹黃은 太陰人藥이라는 註가 있다. 『大典』에는 竹瀝을 太陰人에서 설명한다.	『北韓遺稿』에는 '腎之痰藥 竹瀝瓜蒌仁也'라 하였으나, 『東醫壽世保元』 心경방에 竹瀝이 사용된 경우는 없다.
12	羌活 防風 解腎(氣)之表邪 而羌活優力	『醫典』과 『要訣』에는 '解腎氣之表邪'라 하였다. 『要覽』에는 羌活이 뛰어난다는 표현이 없고, 『朝醫學』에는 '羌活之尤佳'로 표현하였다.	'解腎之表邪 羌活優力'이 타당하다.
13	黃連 山梔子 醒腎之眞氣	『北韓遺稿』에만 梔子를 山梔子로 표현 하였다.	『東醫壽世保元』 心경방에는 '山梔子'로 표현하였다. 山梔子 가 타당하다.
14	滑石 豬苓 滌腎之穢氣	同一하게 표현됨.	
15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 開腎之胃氣 而消食進食	『原論』에는 生地黃을 生薑으로 표현하였고, 『朝醫學』, 『大典』, 『要覽』에는 竹茹가 없다. 『大典』에는 竹茹를 太陰人 藥에서 설명한다.	『原論』의 生薑은 誤記로 보이며, 麥芽, 生地黃, 地骨皮, 竹茹가 타당하다. 다만 竹茹는 『東醫四象新編』에서도 太陰人 약으로 분류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16	石膏 爲腎元帥之藥 能驅逐腎元虛弱而不能制外熱 熱氣侮腎周匝凌侵於胃之四圍者	『原論』, 『大典』에는 '周匝'을 '周一廻'로 표현하였고, 『大典』에는 '胃之四圍者'를 '胃之六四圍府'로 표현 하였다. 『要覽』에는 '石膏는 元帥의 藥이 되어 腎臟의 周圍에 凌侵하는 熱氣를 驅逐한다'고 하였다.	'周匝'과 '胃之四圍者'가 타당하다.
17	輕粉 能除腎之久病	『大典』에 '能'없다.	'能'이 있어야 타당하다.
18	甘遂 通腎之結胸	同一하게 표현됨.	

少陽人이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을 結胸, 太陰人이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을 痢疾, 太陰人이 아래위로 막혀 通하지 않는 것을 噎膈이라는

名稱을 빌어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볼 때 東武의 病理에 대한 認識은 體質에 따른 病證을 강조하고 있으며, 病變의 發生部位나 發病機

轉도 體質에 따라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少陽人 關格이라는 표현은 少陽人 結胸을 표현하는 初期 表現이라 볼 수 있다.

3) 太陰人 藥性歌의 內容 分析

太陰人 藥性歌도 27種의 藥物을 效能에 따라 18種의 說明法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醫書에 따라 약물에 차이가 있다. 『朝醫學』에서는 鬱金과 朱砂를 25種을 설명하고 있으며, 『大典』에는 鬱金과 朱砂가 빠진 대신 桑椹, 竹瀝, 竹茹를 太陰人에서 설명하고 있어 28種의 藥物을 설명하고 있다(표 1).

太陰人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意味를 비교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표 4).

麥門冬의 ‘補肺和肺’는 肺를 補하고 조화시키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며, 五味子の ‘健肺直肺’는 肺를 튼튼하게 하고 곧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砂糖의 ‘固肺立肺’는 肺를 固攝하고 바로 세우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東武遺稿 藥性歌」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문헌에서 ‘砂糖 固肺立肺’라고만 하고 있을 뿐 특별한 說明이나 應用例가 없다. 『北韓遺稿』에서는 肺藥에 砂糖을 分類하고 다른 藥性 설명이 없이 固肺立肺만을 기록하고, 四象人 藥材類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올 뿐이다.⁵⁶⁾ 또한 砂糖은 일반적으로 方劑 構成에 잘 활용되는 藥이 아니며, 四象 方劑에서 砂糖이 활용된 경우는 한번도 없다. 그러나 「東武遺稿 藥性歌」에서는 砂糖을 太陰人에서 補肺和肺한다고 하여, 少陰人에서 補脾和脾하는 炙甘草, 少陽人에서 補腎和腎 茯苓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砂糖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藥性歌가 과연 東武의 著作物인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

砂糖은 보통 음식을 요리할 때나 기호품으로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朝鮮 後期에 유행한 藥性歌에는 砂糖을 藥材로 설명하고 있다. 『濟衆新編』 藥性歌에서 “砂糖味甘 潤肺和中 多食損齒 濕熱生蟲”이라 하였고,⁵⁷⁾ 『方藥合編』 藥性歌에도 설명된다.⁵⁸⁾

東武가 당시 유행한 藥性歌를 習得하였다고 보면 砂糖을 潤肺和中이라 표현한 『濟衆新編』 藥性歌를 바탕으로 固肺立肺의 效能을 제시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는 太陰人 病證과 藥理에 대한 認識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初期 藥理觀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후 尹⁵⁹⁾은 『東醫壽世保元』 補遺方에서 砂糖이 아닌 雪糖을 太陰人 食物과 함께 기록하고 있고, 『北韓遺稿』⁶⁰⁾와 朴⁶¹⁾도 雪糖을 太陰人 食物로 기록하고 있다. 著者の 견해로는 固肺立肺는 砂糖보다는 鹿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山藥의 ‘壯肺而有內守之力’은 肺를 굳세게 하며 안으로 지키는 힘이 있고, 桔梗의 ‘壯肺而有外揚之力’은 肺를 굳세게 하여 밖으로 떨쳐내는 기세가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山藥은 內守를 桔梗은 外揚의 效能을 강조하여 서로 대비되게 설명하고 있다. 『大典』에는 ‘壯肺而有外揚之力’을 ‘壯肺而有外揚之勢’로 표현하고 있으나 ‘勢’보다는 ‘力’이 타당하다.

牛黃의 ‘壯肺而有充足內外之力’은 肺를 굳세게 하며 內外를 충족시키는 힘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朝醫學』에서는 ‘壯肺而充足內外之力’이라 하여 ‘有’가 없이 藥性을 설명하고 있으나 마땅히 ‘有’가 있어야 의미 전달이 완전하다.

石菖蒲는 ‘錯綜肺氣 參伍勻調’라 하여 뒤섞인 肺의 기운을 고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였다. 『朝醫學』, 『原論』, 『要訣』에는 ‘錯綜脾氣之參伍勻調’라 하여 ‘之’가 있으나 『北韓遺稿』에는 ‘之’가 없다. 이는 少陰人의 陳皮와 같은 방법으로 이해해야 하며, 『北韓遺稿』에서 ‘石菖蒲 錯綜肺氣 參伍勻調’라 하고, 뒤섞인 肺氣를 가지런하게 짝맞추고 고르게 조절한다고 한 것이 가장 타당하다.

黃芩의 ‘收斂肺元’은 肺의 元氣를 거두어들이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酸棗仁和 龍眼肉의 ‘安神定意’는 神을 편안하게 하고 意를 제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藥性을 설명하였다.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56) 『東武遺稿』, 앞의 책. 70쪽에서 “砂糖 固肺立肺”라 하여 肺藥에서 설명하고 있고, 154쪽에는 “砂糖 固肺立肺”라 하여 太陰人 藥材類에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57) “砂糖味甘潤肺和中 多食損齒濕熱生蟲” 康命吉 著. 濟衆新編. 서울:驪江出版社. 1992:155.

58) “砂糖甘潤肺及中 多食損齒濕熱蟲”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985:275.
59) 尹完重, 詳校懸吐 東醫壽世保元, 서울:신일문화사. 1972:補遺方 2쪽
60) 『東武遺稿』, 앞의 책. 129쪽.
61) 『東醫四象大典』, 앞의 책. 387쪽.

표 4. 太陰人 藥性歌 분석

번호	太陰人 藥性歌	比較分析	評價
1	麥門冬 補肺和肺	同一하게 표현됨.	
2	五味子 健肺直肺	同一하게 표현됨	
3	砂糖 固肺立肺	同一하게 표현됨	砂糖은 모든 의서에서 기록하고 있으나, 『草本卷』이나 『東醫壽世保元』에서 한번도 사용된 바가 없다. 『濟衆新編』 藥性歌에는 '砂糖味甘潤肺和中 多食損齒濕熱生蟲'이라 하였다. 藥性설명에 동무 저작인지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며, 동무 저작이라면 초기 생각이라는 증거가 된다.
4	山藥 壯肺而有內守之力	同一하게 표현됨	
5	桔梗 壯肺而有外攘之勢	『大典』에는 '勢'를 '力'으로 표현하였다.	'勢'가 타당하다
6	牛黃 壯肺而有充足內外之力	『朝醫學』에는 '有'없다.	'有'있는 것이 타당하다.
7	石菖蒲 錯綜肺氣之參伍勻調	『北韓遺稿』에는 '之'없고,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之'있고, 『醫典』에는 '의'로 되어 있다. 『要覽』에는 '石菖蒲는 肺氣를 勻調하고'로 되어 있다.	『周易·繫辭傳』에 나오는 錯綜과 參伍는 이리저리 뒤섞인다는 뜻을 가지는 말이다. '錯綜肺氣之參伍勻調'는 '이리저리 뒤섞인 肺氣를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8	黃芩 收斂肺元	同一하게 표현됨	
9	山棗仁 龍眼肉 安神定(安)意	『北韓遺稿』에는 '定意'로 표현하였고,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訣』에는 '安意'라 하였다. 『要覽』에는 '神과 意를 安定케 하고'로 표현 하였다.	少陰人 '安氣定魂', 少陽人 安精定志를 고려하면 '安神定意'가 타당하다.
10	天門冬 甘菊 開皮毛	同一하게 표현됨	
11	桑白皮 杏仁 潤肺痰	同一하게 표현됨	
12	麻黃 款冬花 解肺之表邪	同一하게 표현됨	
13	遠志 梲根白皮(小白皮) 醒肺之眞氣	『要覽』에서는 梲根皮, 『醫典』과 『要訣』에는 梲根白皮(小白皮)로, 다른 의서는 梲根白皮로 표현하였다.	梲根白皮가 타당하다.(小白皮는 俗名이다)
14	鬱金 朱砂 滌肺之穢氣	『北韓遺稿』, 『醫典』, 『要覽』, 『要訣』에는 '鬱金은 少陰人藥, 朱砂는 少陽人藥으로 傳書의 誤가 아닌가 한다'는 註가 있으며, 『朝醫學』과 『大典』에는 이 항목이 없다. 『原論』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東醫壽世保元』에는 鬱金은 사용된 바 없고, 朱砂는 少陽人에서 사용된다. 傳書의 誤이거나, 東武의 初期 생각으로 보여진다.
15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	『北韓遺稿』, 『原論』, 『大典』, 『要覽』에는 薏苡仁으로, 『醫典』, 『要訣』에는 薏苡로, 『朝醫學』에는 苡米로 되어 있다.	薏苡, 苡米 모두 薏苡仁을 지칭한다. 黃栗은 동의수세보원 甲午本에서는 모두 黃栗로, 辛丑本에서는 乾栗로 표현하고 있다.
16	熊膽 爲肺元帥之藥 能驅逐侮肺之邪 而其功如脾之炮附子 腎之石膏也	『朝醫學』에는 '肺元帥之藥'을 '肺元帥'로 표현하였다. 『北韓遺稿』에는 '能驅逐侮肺之邪'로 표현하였으나, 『醫典』, 『原論』, 『大典』, 『要訣』에는 '能驅逐肺之邪氣'로 표현 하였고, 『朝醫學』에는 '能驅逐肺之邪'라 하였다. 『要覽』에는 '熊膽은 肺의 元帥의 藥이 되어 肺臟 周圍에 凌侵하는 邪氣를 驅逐한다'고 하였다.	少陰人 炮附子와 少陽人의 石膏와 비교해 보면, 『北韓遺稿』의 '熊膽 爲肺元帥之藥 能驅逐侮肺之邪'가 가장 타당하다. 驅는 驅의 俗字이다.
17	麝香 能除肺之久病	同一하게 표현됨	
18	大黃 通肺之痢便(疾)	『北韓遺稿』에는 '痢便'으로 표현하였으나, 『醫典』, 『朝醫學』, 『原論』, 『大典』, 『要覽』, 『要訣』에서는 '痢疾'이라 하였다.	'痢疾'이나 '痢便'이나 모두 太陰人에서 '小腸之中焦窒塞如霧 한 痢病'을 뜻하는 같은 뜻의 말로 이해되며, 『東醫壽世保元』에는 痢病으로 표현 되어 있다.

'安神安意'로 표현하였으나, 『北韓遺稿』는 '安神定意'로 표현하였다. 少陰人의 '安氣定魂' 少陽人의 '安精定志'와 비교하면 '安神定意'의 표현이 옳다.

한편 『北韓遺稿』에는 酸棗仁은 安神定意하고 龍眼肉은 開皮毛하는 效能을 가졌다고도 하였다.⁶²⁾

62) 酸棗味酸 斂汗祛煩 多眠生用 不眠炒用 ○酸棗仁

天門冬, 甘菊의 ‘開皮毛’는 皮毛를 열어주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桑白皮, 杏仁의 ‘潤肺痰’은 肺의 痰을 부드럽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이는 燥로 인한 痰을 潤하게 하는 效能을 말한다. 『北韓遺稿』에서는 肺의 痰藥으로 黃芩과 青礞石을 제시하기도 하였다.⁶³⁾

麻黃, 款冬花는 ‘解肺之表邪’라 하여 肺의 表邪를 풀어주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北韓遺稿』에서는 太陰人의 發表에 輕證이면 麻黃 杏仁을 쓰고, 重證에는 熊膽 牛黃을 사용하라고도 하였다.⁶⁴⁾

遠志, 栲根白皮의 ‘醒肺之眞氣’는 肺의 眞氣를 깨워 일으키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栲根白皮를 小白皮(『朝醫學』, 『醫典』, 『要訣』) 또는 栲根皮(『要覽』)로 기록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藥物을 지칭하고 있다.

鬱金, 朱砂의 ‘滌肺之穢氣’는 肺의 더러운 기운을 씻어내는 藥性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朝醫學』과 『大典』에서는 이 항목을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 『北韓遺稿』, 『醫典』, 『要覽』, 『要訣』에서는 鬱金은 少陰人藥, 朱砂는 少陽人藥이니 傳書의 誤가 아닌가 의심한다고 하였으나 『原論』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鬱金은 『東醫壽世保元』에서 사용된 바 없어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朱砂는 少陽人 藥이 분명하다.⁶⁵⁾ 이처럼 少陽人 약이 분명한 朱砂를 太陰人에서 설명되고 있어 藥性歌가 東武의 著作이라는 데 의문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근거로 藥性歌가 東武의 著作이 아니라고 하기보다는 東武의 初期 생각이나 傳書의 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즉 「東武遺稿 藥性歌」가 太陰人 病證과 藥理에 대한 認識이 아직 완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겨진다. 著者の 견해로는 鬱金 朱砂보다는 升麻 白芷가 太陰人의 ‘滌肺之穢氣’하는

효능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의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은 肺(太陰人)의 胃氣를 열어주어 飲食을 消化시키고 입맛을 나게 하는 藥性을 설명한 것이다. 薏苡仁을 『醫典』과 『要訣』에는 薏苡로, 『朝醫學』에는 苡米로 표현되어 있으나 모두 같은 藥이다. 『東醫壽世保元』에서는 黃栗을 사용하지 않고 乾栗이 사용되는데 藥性歌를 전하는 모든 문헌에서 乾栗 대신 黃栗로 기록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그러나 처음에 東武는 黃栗과 乾栗을 구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⁶⁶⁾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는 모두 黃栗로 기록하고 있으나,⁶⁷⁾ 『東醫壽世保元』 辛丑本에는 乾栗로 기록하고 있는 점⁶⁸⁾을 미루어 보아 본 藥性歌가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저술할 무렵의 著作으로 추측케 하는 단서가 된다.

熊膽의 ‘爲肺元帥之藥 能驅逐侮肺之邪 而其功如脾之炮附子腎之石膏也’는 熊膽이 肺(太陰人)의 으뜸가는 藥이 되는데, 肺를 업신여기는 邪氣를 쫓아내는 藥性을 가졌는데 그 功이 脾의 炮附子和 腎의 石膏와 같은 效能을 발휘한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 『朝醫學』에는 ‘肺元帥之藥’을 ‘肺元帥’로만 잘못 표현하였다. 또한 『北韓遺稿』에는 ‘能驅逐侮肺之邪’로 표현하였으나, 『醫典』, 『原論』, 『大典』, 『要訣』에는 ‘能驅逐肺之邪氣’로 표현하였고, 『朝醫學』에는 ‘能驅逐肺之邪’라 하여 서로간의 차이가 많으나 『北韓遺稿』의 내용이 가장 타당하다. 『要覽』에는 ‘熊膽은 肺의 元帥의 藥이 되어 肺臟 周圍에 侵侵하는 邪氣를 驅逐한다’고 하였다.

특히 본 藥性歌는 太陰人의 熊膽과 少陰人의 炮附子 그리고 少陽人의 石膏가 같은 效能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루어 藥性歌는 四象人에

安神定意”, “龍眼味甘 歸脾益智 健忘怔忡 聰明廣記 ○龍眼肉 開皮毛” 『東武遺稿』. 앞의 책. 55쪽, 64쪽

63) “肺之痰藥 黃芩青礞石也 脾之痰藥 半夏南星也 腎之痰藥 竹瀝瓜蒌仁也 肝之痰藥 五加皮木瓜也” 『東武遺稿』. 앞의 책. 178쪽.

64) “太陰發表 輕則麻黃杏仁 重則熊膽牛黃” 『東武遺稿』. 앞의 책. 169쪽.

65) 東醫壽世保元에는 少陽人 新定方중 朱砂益元散과 甘遂天一丸에서 주사가 활용되고 있다. 草本卷 少陽藥方중 益元散에서 주사가 활용되고 있다.

66) 『東武遺稿』. 앞의 책. 65쪽에서는 “栗子酸溫 益氣厚腸 補腎耐飢 略燥尤良 ○乾栗 開肺之胃氣而消食進食, 註에서 乾栗은 밤을 길껍질만 벗기고 완전히 말린 것이라 하고, 黃栗은 속껍질 까지 벗겨 빛이 누린밤을 말한다”고 하였다. 156쪽에서는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開肺之胃氣而消食進食”이라 하여 乾栗과 黃栗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67)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중에서 黃栗栲根皮湯과 黃栗五味子固에서 모두 黃栗이 사용되었다.

68)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新定方 가운데 太陰調胃湯, 調胃升清湯, 麻黃定痛湯, 寒多熱少湯, 乾栗蟾蜍湯에서 모두 乾栗이 사용되었다.

가장 적합한 藥物을 선택하여 그 效能을 比較 說明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既存의 藥物의 效能 中心으로 관찰하던 시각에서, 東武는 사람(人間)에 따른 病證에 적합한 藥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麝香의 '能除肺之久病'은 肺의 오래된 病을 능히 제거할 수 있다는 藥性を 설명한 것이다. 大黃의 '通肺之痢便'은 肺의 痢便을 통하게 하는 藥性を 설명하는 것으로, 『北韓遺稿』에만 痢便으로 표현하였고, 다른 문헌에는 痢疾이라 하였다. 『東醫壽世保元』에는 痢病으로 표현하였으나⁶⁹⁾ 痢便이나 痢疾 모두 太陰人의 腹部가 마치 안개가 낀 듯이 갑갑하여 大便이 시원하지 않은 것을 지칭하는 같은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말이다.

4) 太陽人 藥性歌

太陽人 藥性歌를 별도로 전하는 문헌은 없다. 東武는 太陽人 藥物에 대한 經驗이 부족한 까닭에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과 같은 설명법으로 太陽人 藥性歌를 지은 것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4.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의 活用

東武는 자신의 處方중에서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을 어떻게 活用하였는가를 찾아보는 것이 藥性歌의 意味를 파악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된다.

少陰人에서는 人蔘, 白朮, 甘草, 當歸, 川芎, 桂皮(桂枝), 陳皮, 白芍藥 등의 藥材는 자주 活用되었다. 그러나 桃仁, 紅花, 蓬朮, 三稜, 神曲, 紫河車 등 6種의 藥은 少陰人 新定方에서 사용된 바 없다(표 5).

少陽人에서는 熟地黃, 山茱萸, 茯苓, 知母, 澤瀉, 木通, 牡丹皮 등의 藥材는 자주 活用되었다. 그러나 黑桑椹, 石花, 童便, 竹瀝, 麥芽, 竹茹 등 6種의 藥은 少陽人 新定方에서 사용된 바 없다(표 6).

太陰人에서는 麥門冬, 五味子, 山藥, 桔梗, 石菖蒲, 黃芩 등의 藥材는 자주 活用되었다. 그러나 砂糖, 桑白皮, 鬱金, 朱砂 등 4種의 藥은 太陰人 新定方에서 사용된 바 없다(표 7).

표 5.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少陰人 藥物의 使用 頻度表

藥名	少陰人 藥(27種)					
	草本卷 少陰人 藥方 N=16(%)*		甲午本 新定方 N=27(%)**		辛丑本 新定方 N=30(%)***	
人蔘	4(25.0)		14(51.9)		14(46.7)	
白朮	6(37.5)		14(51.9)		14(46.7)	
灸甘草 (감초)	4 (2)	6(37.5)	18 (0)	18(66.7)	18 (0)	18(60.0)
當歸	4(25.0)		8(29.6)		12(40.0)	
川芎	3(18.8)		9(33.3)		4(13.3)	
官桂 (계피) (계삼) (계자)	0 2 1 0	3(18.8)	6 (4) (0) (5)	15(55.6)	7 (2) (0) (10)	19(63.3)
陳皮	6(37.5)		13(48.1)		14(46.7)	
白芍藥	2(12.5)		17(63.0)		17(56.7)	
藿香 砂仁	1(6.3) 2(12.5)		5(18.5) 4(14.8)		2(6.7) 2(6.7)	
乾薑 (炮乾薑) 肉豆蔻	0 (0) 1	0(0.0) 1(6.3)	8 (0) 1	8(29.62) 1(3.70)	4 (3) 1	7(23.3) 1(3.3)
製半夏 炮南星	5(31.3) 2(12.5)		2(7.4) 0(0.0)		3(1.0) 0(0.0)	
紫蘇葉 (소엽) 蔥白	0 (3) 0	3(18.8) 0(0.0)	8 (0) 2	8(29.6) 2(7.4)	2 (1) 1	3(10.0) 1(3.3)
桃仁 紅花	0(0.0) 0(0.0)	(單方藥에서 1회)	0(0.0) 0(0.0)		0(0.0) 0(0.0)	
蓬朮 三稜	0(0.0) 0(0.0)		0(0.0) 0(0.0)		0(0.0) 0(0.0)	
神曲 木香 丁香 香附子	0(0.0) 2(12.5) 1(6.3) 2(12.5)	錢氏異功散 가 감에서 1회)	0(0.0) 3(11.1) 1(3.7) 3(11.1)		0(0.0) 1(3.3) 0(0.0) 4(13.3)	
炮附子	1(6.3)		5(18.5)		7(23.3)	
紫河車	0(0.0)		0(0.0)		0(0.0)	
巴豆	0(0.0)		1(3.7)		1(3.3)	

* : 草本卷 少陰人 藥方의 處方 16方を 기준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少陰人 新定方 22方과 加味方 5方を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陰人 新定方 24方과 加味方 6方を 더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69) “太陰人 痢病則小腸之中焦 窒塞如霧” 『東醫壽世保元·四象人辨證論』

표 6.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少陽人 藥物의 使用 頻度表

少陽人藥(27種)						
藥名	草本卷 少陽人 藥方 N=21(%)*		甲午本 新定方 N=22(%)**		辛丑本 新定方 N=20(%)***	
	熟地黄	6(28.6)		1(4.5)		4(20.0)
山茱萸	12(57.1)		7(31.8)		5(25.0)	
茯苓 (적복령) (백복령)	1 (10)	12(57.1)	1 (5)	6(28.6)	6 (2)	8(40.0)
知母	8(38.1)		6(27.2)		7(35.0)	
澤瀉	12(57.1)		7(31.8)		10(50.0)	
木通	3(14.3)		4(18.1)		3(15.0)	
牡丹皮	4(19.0)		2(9.1)		4(20.0)	
黃柏	6(28.6)		3(13.6)		3(15.0)	
黑桑椹	0(0.0)		0(0.0)		0(0.0)	
枸杞子	2(9.5)		2(9.1)		2(10.0)	
石花 童便	0(0.0) 0(0.0)		0(0.0) 0(0.0)		0(0.0) 0(0.0)	
瓜蒌仁	8(38.1)		2(9.1)		1(5.0)	
竹瀝	0(0.0)		0(0.0)		0(0.0)	
羌活	11(52.4)		5(22.7)		8(40.0)	
防風	10(47.6)		3(13.6)		14(70.0)	
黃蓮	2(9.5)		5(22.7)		5(25.0)	
山梔子	2(9.5)		4(18.2)		4(20.0)	
滑石	2(9.5)		3(13.6)		2(10.0)	
豬苓	4(19.0)		4(18.2)		2(10.0)	
麥芽	0	0(0.0)	0	0(0.0)	0	0(0.0)
生地黄 (건지황)	14 (0)	14(66.7)	14 (1)	15(68.2)	10 (0)	10(50.0)
地骨皮	1	1(4.8)	1	1(4.5)	3	3(0.0)
竹茹	0	0(0.0)	0	0(0.0)	0	0(0.0)
石膏	7(33.3)		7(31.8)		6(30.0)	
輕粉	0(0.0)		1(4.5)		4(20.0)	
甘遂	0(0.0)		1(4.5)		5(25.0)	

* : 草本卷 少陽人 藥方의 處方 21方을 基準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少陽人 新定方 19方과 加味方 3方을 더한 것을 基準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少陽人 新定方 17方과 加味方 3方을 더한 것을 基準으로 하였다.

표 7.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太陰人 藥物의 使用 頻度表

太陰人藥(27種)						
藥名	草本卷 太陰人 藥方 N=29(%)*		甲午本 新定方 N=18(%)**		辛丑本 新定方 N=26(%)***	
	麥門冬	17(58.6)		9(50.0)		12(46.2)
五味子	15(51.7)		8(44.4)		6(23.1)	
砂糖	0(0.0)		0(0.0)		0(0.0)	
山藥	6(20.7)		4(22.2)		5(19.2)	
桔梗	18(62.1)		11(61.1)		12(46.2)	
牛黃	1(3.4)		1(5.6)		1(3.8)	
石菖蒲	7(24.1)		2(11.1)		6(23.1)	
黃芩	19(65.5)		11(61.1)		10(38.5)	
酸棗仁	8(27.6)		6(33.3)		2(7.7)	
龍眼肉	8(27.6)		2(11.1)		3(11.5)	
天門冬	10(34.4)		5(27.8)		4(15.4)	
甘菊	2(6.9)		2(11.1)		1(3.8)	
桑白皮	0(0.0)		0(0.0)		0(0.0)	
杏仁	14(48.3)		6(33.3)		6(23.1)	
麻黃	8(27.6)		4(22.2)		8(30.7)	
款冬花	1(3.4)		2(11.1)		1(3.8)	
遠志	5(17.2)		3(16.7)		4(15.4)	
樗根白皮	2(6.9)		2(11.1)		1(3.8)	
鬱金	0(0.0)		0(0.0)		0(0.0)	
朱砂	0(0.0)		0(0.0)		0(0.0)	
蓮肉	3	3(10.3)	2	2(11.1)	1	1(3.8)
薏苡仁	6	6(20.7)	0	0(0.0)	7	7(26.9)
白果	1	1(3.4)	3	3(16.6)	1	1(3.8)
黃粟 (건율)	4 (3)	7(24.1)	3 (0)	3(16.6)	0 (6)	6(23.1)
熊膽	1(3.4)		1(5.6)		1(3.8)	
麝香	2(6.9)		1(5.6)		3(11.5)	
大黃	11(37.9)		5(27.8)		5(19.2)	

* : 草本卷 太陰人 藥方의 處方 29方을 基準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甲午本 太陰人 新定方 17方과 加味方 1方을 더한 것을 基準으로 하였다.

*** : 東醫壽世保元 辛丑本 太陰人 新定方 24方과 加味方 2方을 더한 것을 基準으로 하였다.

5. 「東武遺稿 藥性歌」의 著者と 著述時期의 推定

1) 「東武遺稿 藥性歌」는 東武의 著作이다.

「東武遺稿 藥性歌」를 전하고 있는 文獻에 따라 藥物의 種類나 藥性歌의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고, 또한 「東武遺稿 藥性歌」의 藥物 中에는 東武의 新定方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藥物도 있으며, 더불어 新定方에서 자주 사용되는 藥들이 「東武遺稿 藥性歌」에는 설명되지 않으며, 體質이 분명한 약이 다른 體質 藥으로 설명되는 등 「東武遺稿 藥性歌」가 東武의 著作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東武遺稿 藥性歌」는 東武의 著作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다. 첫째, 藥性歌를 기록하고 있는 모든 文獻에서 東武遺稿라고 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體質別로 구별하여 藥性を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藥物 하나 하나를 중심으로 藥性を 설명하던 既存의 藥性歌와는 다르게, 한가지 혹은 2~4가지 藥物을 같은 藥性を 발휘하는 藥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넷째 「東武遺稿 藥性歌」는 四象人의 臟局大小 特性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少陰人 藥性歌는 “人參 補脾和脾” 등과 같이 모두 脾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少陰人이 腎大脾小하다는 바탕위에서 작성된 것이다. 즉 少陰人의 根本 條件인 保命之主⁷⁰⁾를 어떻게 維持·保全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느냐에 중점을 두고 藥物에 따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偏小之臟을 중심으로 少陽人은 腎, 太陰人은 肺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결국 「東武遺稿 藥性歌」는 四象人 臟理를 전제로 하고 藥物의 效能을 體質別로 區分하여 쉽게 이해될 수 있게 작성한 것으로 既存의 藥性歌와는 그 형식이 매우 독특하다. 이와 같은 論理의 전개는 東武가 아니고서는 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며, 全體의 인 內容의 構成이나 說明되는 用語를 보면 이 「東武遺稿 藥性歌」는 東武의 著作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著述時期의 推定

『東醫壽世保元』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면 「東武遺稿 藥性歌」는 틀린 점이 많다. 「東武遺稿 藥性歌」의 藥物 中에는 砂糖과 같이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藥物도 있으며, 더불어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서 자주 사용되는 葛根 升麻 白芷와 같은 藥들이 「東武遺稿 藥性歌」에는 그 藥성이 설명되지 않으며, 朱砂와 같이 少陽人 약이 분명한 약이 太陰人 藥으로 설명되는 등 「東武遺稿 藥性歌」가 四象醫學의 理論에 명확히 부합하지 않는 것이 있다.(표 8).

그러나 『東醫壽世保元』도 東武가 여러 해를 거치면서 점차적으로 完成해 나간 醫書임을 勘案하면, 「東武遺稿 藥性歌」가 『東醫壽世保元』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즉 「東武遺稿 藥性歌」가 『東醫壽世保元』과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부분은 東武가 四象人 病證論을 완성해 가는 과정에 쓰여진 著述로 보면 理解가 된다.

따라서 「東武遺稿 藥性歌」의 著述 時期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甘草나 芍藥이 少陰人의 藥으로 분명히 설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甘草나 芍藥이 太陽人에서 사용되고 있는 『草本卷』보다는 나중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東武遺稿 藥性歌」에서 黃栗이 응용된 점이나 葛根 升麻 白芷 藥本 등의 藥이 쓰여지지 않은 것을 보면, 熱多寒少湯의 개념이 完成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 틀림없음으로 『東醫壽世保元』 太陰人 病證論이 완성되어 가는 庚子年(東武 64歲) 보다는 먼저 作成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東武遺稿 藥性歌」의 著述時期를 추정하면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작성하기 직전이나 그 무렵인 東武 나이 50중반(53-57歲)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70) 保命之主는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에 나오는 말로 少陰人은 陽燄之氣 保命之主, 少陽人은 陰清之氣 保命之主, 太陰人은 呼散之氣 保命之主, 太陽人은 吸聚之氣 保命之主라 하였다.

표 8. 「東武遺稿 藥性歌」의 藥物과 『東醫壽世保元』新定方에 사용된 藥物

體質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	
	甲午本	辛丑本	甲午本	辛丑本	甲午本	辛丑本
新定方 중 自主 사용된 藥物의 순서	炙甘草 (大棗) 白芍藥 白朮 人蔘 陳皮 (生薑) 川芎 當歸 乾薑 (黃芪) 紫蘇葉	炙甘草 (生薑) 白芍藥 (大棗) 陳皮 人蔘 當歸 白朮 (白何首 烏) 桂枝 (黃芪) 乾薑	生地黄 (柴胡) (覆盆子) 澤瀉 石膏 山茱萸 (苦參) 知母 知母 赤茯苓 羌活 (黃連) (荊芥)	防風 (荊芥) 澤瀉 生地黄 羌活 (獨活) 知母 石膏 (車前子) 茯苓 山茱萸 甘遂	桔梗 黃芩 麥門冬 五味子 杏仁 (升麻) (酸棗仁) 麥門冬 (葛根) 大黃 山藥 麻黃	桔梗 麥門冬 (羅漢子) 黃芩 麻黃 薏苡仁 石菖蒲 (乾朮) 杏仁 (葛根) 大黃 山藥
	() 藥物은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나지 않는 藥物임					
「東武遺稿 藥性歌」藥物 중 新定方에서 한번도 사용되지 않는 藥物	南星 桃仁 紅花 蓬朮 三稜 神曲 紫河車	南星 桃仁 紅花 蓬朮 三稜 神曲 紫河車	黑桑椹 石花 童便 竹瀝 麥芽 竹茹	黑桑椹 石花 童便 竹瀝 麥芽 竹茹	砂糖 桑白皮 鬱金 朱砂 薏苡仁	砂糖 桑白皮 鬱金 朱砂 黃栗
合計	7種	7種	6種	6種	5種	5種

6. 「東武遺稿 藥性歌」의 意味解釋과 四象醫學의 意義

「東武遺稿 藥性歌」를 단순히 藥物의 效能이나 體質에 適合한 藥物을 區分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東武遺稿 藥性歌」의 진정한 意味를 파악하기 어렵다.

「東武遺稿 藥性歌」는 各 體質에서 가장 脆弱點을 補強하는 意味에서, 少陰人에서는 人蔘, 白朮, 炙甘草를 중심으로 한 補脾를, 少陽人에서는 熟地黄, 山茱萸, 茯苓을 중심으로 한 補腎을, 太陰人에서는 麥門冬, 五味子, 桔梗(砂糖)을 중심으로 한 補肺를 강조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症狀를 中心으로 藥物을 選擇하던 視覺에서, 사람(人)을 中心으로 體質別 弱點을 補強하는데 一次的 目的을 두어 適應藥物 選擇하였으며 方劑構成에 있어서도 思考의 轉換이 일어난 것이다.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意味로 미루어 보건데, 東武는 體質에 따라 가장 效果的이고 適切한 藥物을 選擇하는데 體質과 病症을 함께 고려하는 段階의 方法을 強調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保

命之主를 維持保全하기 위한 方法으로 가장 基本的인 것부터 補○和○, 健○稷○, 固○立○의 형식으로 構成하고, 다음에 확보된 保命之主를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氣의 方向을 調節하는 것이다. 즉 안으로 지키거나(壯○而有內守之力), 밖으로 뺏어내거나(壯○而有外揚之勢), 內外를 같이 保全(壯○而有充足內外之力)하거나 하는 단계를 거쳐, 기운이 흩어진 것을 고르게 하고(錯綜○元 參伍勻調), 소모된 것을 거두어 들이고(錯綜○元 參伍勻調), 保命之主를 완벽히 擴充하는 것이 四象方劑構成의 要件이며 體質病證을 解決하는 基本 原則이라는 것이다(표 9).

둘째는 確保된 保命之主를 바탕으로 疾病의 症狀에 따라 藥物을 加減 選擇하는 것이다. 즉 病症이 精神의인 面(安氣-精-神), 定(魄-志-意)), 肉體의인 面(溫肉理-滋骨髓-開皮毛), 痰飲(消-豁-潤)○痰), 表邪의 除去(解○之表邪), 더러운 기운을 씻어 내거나(滌○之穢氣), 바른 기운을 깨우는 것(醒○之眞氣), 胃氣를 열어 음식을 먹게 하는 것(開○之胃氣 而消食進食) 등에서 문제가 생기면 體質에 따라 가장 適合한 藥材를 選擇하는 것이 最善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重證이나 急證인 경우에도 體質에 따라 區分하여 설명하고 있다. 매우 頑固하여 危重한 病은 附子나 石膏 熊膽과 같은 元帥之藥으로 해결하고(爲○元帥之藥 能驅逐○元虛弱 而不能除外(冷-熱) (冷-熱)氣之邪侮○周匝能侵於胃之四圍者), 아주 오래된 病은 紫河車나 輕粉 麝香과 같은 藥으로 久病을 다스리며(能除○之久病), 혹은 上下의 소통이 안되어 생기는 關格 結胸 痢病과 같은 경우(通○之(關格-結胸-痢便))도 體質에 따라 해결하는 藥도 區分된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東武는 危急證이나 重險證에도 體質病證에 따른 藥物 選擇 基準을 제시하고 있다(표 9). 그러므로 「東武遺稿 藥性歌」를 既存의 藥性歌처럼 개별 藥物 中心으로 이해해서는 곤란하며, 한 體質內에서 藥物 比較로만 그쳐서도 곤란하다. 「東武遺稿 藥性歌」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을 한꺼번에 두고 서로 비교하여 보면서 그 意味를 파악해야 하며, 體質에 適合한 藥을 區別하는데 中心을 두어서는 곤란하다.

결국 東武는 四象人의 保命之主를 確保하고 擴充시키는데 가장 必須的인 藥부터, 諸般病證을 解決하기 위하여 症狀의 輕重과 緩急에 따라 體質別로 適

표 9. 「東武遺稿 藥性歌」의 總括表

번호	藥性歌 ○: 脾-腎-肺	少陰人藥 (27種)	少陽人藥 (27種)	太陰人藥 (27種)	意味解析
1	補○和○	人蔘	熟地黄	麥門冬	保命之主의 維持와 保全에 가장 基本的인 藥
2	健○直○	白朮	山茱萸	五味子	
3	固○立○	灸甘草	茯苓	砂糖	
4	壯○而有內守之力	當歸	知母	山藥	
5	壯○而有外揚之勢	川芎	澤瀉	桔梗	
6	壯○而有充足內外之力	官桂	木通	牛黃	
7	錯綜○氣 參伍勻調	陳皮	牡丹皮	石菖蒲	
8	收斂○元	白芍藥	黃柏	黃芩	
9	安(氣-精-神) 定(魄-志-意)	藿香 砂仁	黑桑椹 枸杞子	酸棗仁 龍眼肉	保命之主에 바탕한 正氣를 擴充하기 위해 氣運의 方向(升·降·內·外)을 調節하는 藥
10	(溫肉理-滋骨髓-開皮毛)	乾薑, 肉豆蔻	石花, 童便	天門冬, 甘菊	
11	(消-豁-潤)○痰	製半夏, 炮南星	瓜蒌仁, 竹瀝	桑白皮, 杏仁	
12	解○之表邪	紫蘇葉, 蔥白	羌活, 防風	麻黃, 款冬花	
13	醒○之眞氣	桃仁, 紅花	黃蓮, 山梔子	遠志, 檉根白皮	
14	滌○之穢氣	蓬朮, 三稜	滑石, 豬苓	鬱金, 朱砂	
15	開○之胃氣 而消食進食	神曲, 丁香, 木香, 香附子	麥芽, 生地黄, 地骨皮, 竹茹	蓮肉, 薏苡仁, 白果, 黃栗	
16	爲○元帥之藥 能驅逐○元虛弱 而不能除外(冷-熱) (冷-熱) 氣之邪 侮○周匝能侵於胃之 四圍者	炮附子	石膏	熊膽	
17	能除○之久病	紫河車	輕粉	麝香	病證에 따라 加減選擇하고자 하는 目的에서의 體質別 藥과 藥性
18	通○之(關格-結胸-痢便)	巴豆	甘遂	大黃	

註 1) 「東武遺稿 藥性歌」의 번호는 著者が 편의상 임의로 붙인 것이다.

註 2) 「東武遺稿 藥性歌」1~18까지에 나타나는 '○'는 少陰人 藥性歌에서는 脾, 少陽人 藥性歌에서는 腎을, 太陰人 藥性歌에서는 肺를 말한다.

註 3) 「東武遺稿 藥性歌」9, 10, 11, 18에서 표현된 '(-)'는 少陰人, 少陽人, 太陰人의 순서로 해당되는 藥性歌를 말한다. 예를 들어 藥性歌 18은 '巴豆 通脾之關格, 甘遂 通腎之結胸, 大黃 通肺之痢便'을 말한다.

註 4) 「東武遺稿 藥性歌」16은 少陰人 炮附子의 藥性和 少陽人 石膏의 藥性を 설명한 것이고, 太陰人 熊膽에 대한 藥性は 별도로 '熊膽 爲肺元帥之藥 能驅逐侮肺之邪 而其功如脾之炮附子 腎之石膏也'라 표현되어 있다.

用되는 藥의 藥理와 藥性を 「東武遺稿 藥性歌」를 통하여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東武遺稿 藥性歌」의 意義는 東武가 四象人의 臟理에 따른 藥物의 效能을 설명하고, 體質病證을 따른 藥物의 適應症을 중심으로 새롭게 處方을 制定하게 되는 理由와 目的, 新定方의 構成原理를 提供하는 東武의 初期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東武의 初期 藥理的 思考는 후후 臨牀的 經驗이 蓄積되어 가면서 藥物의 選擇이나 藥性에 대한 認識이 變化되어 가므로 『東醫壽世保元』의 모든 新定方을 「東

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藥性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III. 結 論

「東武遺稿 藥性歌」에 대한 意味를 정확히 評價하는 것이 四象藥物과 四象方劑에 대한 研究의 基礎資料로 重要하다고 생각하여, 「東武遺稿 藥性歌」로 알려진 四象藥性 說明法에 관한 資料調査와 檢討를

통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東武遺稿 藥性歌」는 少陰人·少陽人·太陰人에서 각각 27種의 藥物을 18種의 藥性歌로 설명한 독특한 藥性 說明法으로 東武의 著作物이며, 著述時期는 『東醫壽世保元』 甲午本을 작성하기 직전이나 그 무렵인 東武 나이 50중반(53-57歲)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東武遺稿 藥性歌」의 內容은 北韓 保健省에서 발행된 『東武遺稿』가 가장 原形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主要內容은 四象人의 小한 臟腑의 脆弱點을 爲主로 適用되는 藥性을 說明한 것으로 保命之主를 確保하는 藥物과 病症에 따라 選擇되는 藥物의 效能을 體質 別로 說明하고 있다.
3. 「東武遺稿 藥性歌」의 意義는 四象人의 臟理에 따라 적용되는 藥의 藥性과, 體質病證에 따라 新定方을 制定하게 되는 理由와 目的 및 新定方의 構成原理를 알려주는 東武의 初期 생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初期 藥理觀은 추후 臨牀的 經驗이 蓄積되어 가면서 藥物의 選擇이나 藥性에 대한 認識이 變化되어 가므로 『東醫壽世保元』의 모든 新定方을 「東武遺稿 藥性歌」에 나타난 藥物과 藥性으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東武遺稿 藥性歌」는 各 藥物의 主治證을 說明하거나 體質別 適應藥物을 區分하는 目的이 아니라 東武는 「東武遺稿 藥性歌」를 통하여 四象人의 保命之主를 確保하고 擴充시키는데 가장 必須的인 藥부터, 諸般病證을 解決하기 위하여 症狀의 輕重과 緩急에 따라 體質 別로 適用되는 藥의 藥性을 說明한 것으로 四象方劑 構成의 原理를 把握하게 하는 端緒를 提供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參 考 文 獻

1. 康命吉 著. 濟衆新編. 서울:驪江出版社. 1992.
2. 金敬琢 譯著. 周易. 서울:明文堂. 1979.
3. 金九嶽(魯山) 筆, (李濟馬 原著).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筆寫本. 1951.
4. 梁병무·차광석 번역, 李濟馬 著. 東武遺稿(國譯韓醫學大系 15). 서울:海東醫學社.1999.
5. 朴奭彦 編譯. 東醫四象大典. 서울:醫道韓國社. 1977.
6. 朴寅商. 東醫四象要訣. 서울:소나무. 1997.
7. 延邊朝鮮族自治州民族醫學研究所編. 朝醫學. 의명회 학술부 발행. 1989.
8. 元持常. 東醫四象新編. 서울:文友社. 1929.
9. 尹完重 編, 李濟馬 著. 東醫壽世保元. 서울:信一文化社. 1972.
10. 李基東 譯解. 周易講說 下. 서울: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7.
11. 李道耕 譯編, 李濟馬 原著. 家庭必備 四象要覽. 圓佛敎圓光社. 1964.
1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影印本. 서울:대성문화사. 1998.
13. 韓敏甲 筆, (李濟馬 原著). 咸山 沙村 東醫壽世保元 甲午舊本. 筆寫本. 1940.
14. 李泰浩 編著. 東醫四象診療醫典. 重版. 서울:행림출판사. 1990.
15. 杏林書院 編輯部編纂. 實際的 東醫四象診療의 秘訣 全. 서울:杏林書院. 단기4294년(1961년).
16. 洪淳用·李乙浩. 四象醫學原論. 再版. 서울:행림출판. 1995.
17. 黃度淵. 對譯證脈方藥合編. 서울:南山堂. 1985.
18. 金鍾悅. 四象體質別 藥材 分類에 관한 研究.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0.
19. 宋炳基. 東醫壽世保元 新定方에 使用된 藥材의 本草性能에 關한 統計的 研究.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5.
20. 宋一炳. 四象醫學의 藥理의 考察. 서울. 경희대학교 대학원. 1967.
21. 李時雨. 東醫壽世保元 處方에 活用된 藥材에 대한 考察. 전북 익산.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9.
22.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관한 文獻 考察(I).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1):169-261.
23. 鄭鳳然,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家에서 分類한 各 體質藥物에 관한 文獻 考察(II).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135-180.
24. 趙晃晟. 四象方劑 構成의 分析研究. 사상체질의학회지. 1995;7(2):21-44.